ⓐ, 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ⓐ는 ‘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’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.

② ⓑ는 ‘호을로’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고 있다.

③ ⓐ는 바라봄의 대상인 ‘서쪽 마을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을, ⓑ는 일과를 마친 ‘저녁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.

④ ⓐ는 ‘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’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을, ⓑ는 ‘고즈넉한’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‘담담한 사실’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.

⑤ ⓐ는 사물들을 ‘내려다보’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의 성격을, ⓑ는 ‘달갑고’, ‘좋아하는’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.